

# ‘괴물 수비수’ 김민재, 2023년 최초로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상 도전



**소속팀 나폴리 33년 만에 정상 올려보  
동료 로렌초·에르난데스 등과 3파전**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정상에 올려놓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리그 최우수 수비수에 도전한다.  
세리에A 사무국은 5월 31일(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2~2023 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후보 3명을 발표

했다.  
김민재는 팀 동료인 조반니 디 로렌초,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와 3파전을 벌인다.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는 ‘빛장수비수’ 불리는 이탈리아 최상위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는 걸 의미한다.  
2018~2019시즌 시작된 이상은 그동안 칼

리두 콜리발리(첼시·당시 나폴리), 스테판 더 프레이(인터밀란), 크리스티안 로메로(토트넘·당시 아탈란타), 클레이송 브레메르(유벤투스·당시 토리노)가 수상했다.

김민재가 이 상을 받으면 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이 된다.

지난해 여름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정규리그 35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올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컵 대회를 포함하면 공식전 45경기를 뛰었다.

김민재의 활약에 나폴리는 리그 최종전을 남기고 세리에A 37경기에서 팀 최소 실점 1위(28골)를 달리고 있다.

김민재는 지난해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뉴스

나폴리의 김민재(오른쪽)가 4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3 세리에A 축구 32라운드 셀레르니타나와의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나폴리는 1·1로 비겨 33년 만의 우승 확정을 미루게 됐다.

## 배준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첫 금메달

여자 73kg급 이다빈 16강서 탈락

배준서(강화군청)가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배준서는 5월 30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러시아 출신 개인종합자격을 가진 게오르기 구르치시예프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배준서는 2019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54kg급) 이후 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과달라하라 대회(54kg급)에서는 동메달을 땀었다.

2016년 캐나다 버나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기대주로 떠오른 배준서는 2019년 성인 대표팀 발탁 후 곧바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올해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남자 58kg



급 올림픽 랭킹 1위 장준(한국가스공사)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날 배준서는 먼저 1점을 내줬지만, 이후 점수를 꾸준히 추가하며 10·2로 1라운드를 마쳤다.

또 2라운드에서도 15·5로 승리를 따냈다. 배준서는 경기 후 “4년 동안 시간이 길다 보

니 힘든 일도 있었고 부상도 많았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하면서 달려오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남은 기간 올림픽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권도 스타플레이어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이대훈 코치는 이날 배준서의 지도자석에서 대표팀 지도자로 첫발을 뒀다.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다빈(서울시청)은 여자 73kg급 16강에서 마르셀라 스미라글리아(이탈리아)에 0·2로 제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이다빈은 “다른 대회보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부담이 컸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홍효림(강원체육고)은 여자 67kg급 8강에서 탈락했다.

## 두산, ‘학폭무죄’ 이영하와 정식계약

연봉 1억2000만원…법원 판결 나온 직후 연봉 계약 마쳐

학교폭력 의혹을 벗은 두산 베어스 우완 투수 이영하(26)가 정식 계약을 맺었다.

두산은 5월31일 이영하와 1억2000만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봉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 금액이다.

학교폭력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영하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이영하는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가 재판에 넘겨진 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했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이영하와 계약하겠다고 밝힌 두산은 곧장 사인까지 마쳤다.

두산 2군 훈련장인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



고등학교 시절 후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5월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이영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구단 공식 훈련에 참가한다. 이후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내일 귀국…손흥민 등 자유훈련

12일 소집 예정…16일 페루·20일 엘살바도르와 A매치 2연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022~2023시즌을 마친 축구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5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부친 손흥경 씨.

한국 축구대표팀 부임 후 바쁜 일정을 보낸 뒤 미국에서 휴식을 마친 워렌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돌아와 6월 A매치 준비에 돌입한다.

5월3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6월 2일 귀국한다.  
유럽에서 머물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오스트리아) 수석코치를 비롯한 다른 코치들은 하루 앞선 1일 돌아온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곧바로 주말 열리는 K리그 경기장을 찾는다.

대표팀은 같은 달 12일 소집해 16일과 20일

각각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페루, 엘살바도르와 두 차례 A매치를 갖는다.

올해 2월27일 한국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3월 첫 소집에서는 카타르월드컵 16강 멤버를 중심으로 꾸려 3월24일 콜롬비아(2·2 무), 28일 우루과이(1·2 패)와 두 차례 평가전으로 첫 발을 뒀다.

공격 축구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을 녹여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후 손흥민(토트넘), 김민

재(나폴리)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하고, 이달 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 추첨 행사에 참석하는 등 광복 행보를 보낸 뒤 자택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이어왔다.

현역 시절 독일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클린스만 감독은 은퇴 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6월 두 번째 소집은 의미가 크다.

3월에는 부임 직후라 전임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축구에 맞는 선수를 뽑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동안 코치진과 함께 K리그 경기장과 유럽을 돌며 선수들을 직접 체크해왔다.

두 번째 소집이라 클린스만호 2기로 불리지만, 사실상 1기로 봐도 무방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6월 A매치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자신이 직접 뽑은 선수들로 치르는 첫 무대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지난 3월 첫 승에 실패한 터라 이번 6월 A매치에서 첫 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유럽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해외파들도 클린스만호 소집에 앞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간다.

지난 5월 29일 황희찬(울버햄튼)을 시작으로 30일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등이 귀국했다.

선수들은 짧은 휴가를 보낸 뒤 개인 사정에 맞춰 자율 출퇴근 형식으로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장소는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나 서울 근교 등이 꼽힌다.

과거에도 해외파들은 정식 소집에 앞서 자율적으로 개인 훈련을 소화한 바 있다.

뉴스



## 최경주·임성재,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 경쟁 펼쳐…한국 선수 7명 출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한국 선수 7명이 출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펼친다.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파72)에서 메모리얼 토너먼트 대회가 열린다. 총상금은 264억원, 우승 상금은 47억원이다.

한국 선수 중 최경주가 유일하게 2007년 우승을 경험했다.

2018년에 안병훈이 연장전에서 브라이언 디셔보에게 패하면서 준우승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다승(5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메이저 대회와 플

남자 골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출전  
최경주 2007년 우승, 안병훈 2018년 준우승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최경주, 임성재, 김성현, 김시우, 이경훈, 김주형이 출전한다.

스코트 셰플러, 온 램, 로리 매킬로이, 패트릭 캔틀레이, 젠더 쇼플리 등 남자 골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뉴스